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
|  | 독일 (프랑크푸르트) 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| 작성팀 | 마케팅지원팀 |
| | | 담당자 | 정훈희 소장 |
| | | 일시 | 2025. 1. |

CEPA Insight

- 2025년에도 독일 정부와 EU 차원의 각종 친환경 조치와 기후 중립을 위한 일관성 있는 노력이 지속될 예정으로 관련 동향 지속 모니터링
-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다양하게 제안된 법안 중 일부는 신호등 연합의 조기 해체로 보류, 차후 신정부 구축에 관심 주목(2.23.총선)

1 독일 주요 기관, 2025년 경제성장 전망 하향 조정

- 킬 세계경제연구소(ifW)는 내년 독일 GDP가 정체(0% 성장)될 것으로 예상
 - 춘계 1.2%, 추계 0.5% 성장 전망
 - '24년 GDP 성장률도 추계 전망치 -0.1%에서 -0.2%로 하향 조정
- 독일연방은행 또한 기존의 1.1% 전망에서 0.2%로 하향 조정
 - '26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('26. : 0.8% → '27. : 0.9%)
 - '25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, 2.4%로 예측
- 각 기관은 현 상황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하고, 미국의 새로운 무역 관세 부과 시 더 악화 될 수 있음을 시사

※ 출처 : Handelsblatt (<https://www.handelsblatt.com/politik/konjunktur/konjunktur-fuehrendes-institut-sieht-auch-2025-kein-wachstum/100093740.html>)

② 독일 내 기업 파산 건수 지난 10년간 최고치 기록

- 신용평가기관 Creditform은 '24년 독일의 기업 파산 건수는 전년 대비 24.3% 증가한 22,400건으로 지난 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기업이 약해진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, 금리 인상 등으로 기업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으며, 팬데믹 지원책이 종료됨에 따라 파산 기업이 증가했다고 분석
- 특히, 서비스업(27.1%)과 제조업 (23.9%)에서 높은 파산율을 기록
 - 전체 파산 기업 중 81.4%는 직원 수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이며, 직원 수가 250명 이상인 대기업의 파산 또한 44.4% 증가

※ 출처 : Zeit (<https://www.zeit.de/wirtschaft/unternehmen/2024-12/insolvenzwelle-firmenpleiten-wirtschaftskrise-creditreform-rekordwert>)

③ 독일 무기 수출, 역대 최고치 기록

- '24년 독일의 무기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, 연방정부는 한해 동안 약 132억 유로 규모의 군사 장비 수출 승인('23년: 122억 유로)
 - 무기 수출 증가 이유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, 우크라이나는 올해 독일이 승인한 전체 수출액의 62%(81억 유로) 해당
- 정부에 따르면, '24년 무기 수출 승인액의 약 86%인 113억 유로는 EU, NATO 회원국 및 준회원국, 우크라이나에 해당 되며, 그 외 수출국은 알제리 5억5,900만 유로, 미국 2억9,850만 유로, 터키 2억3,090만 유로 순

※ 출처 : Tagesschau (<https://www.tagesschau.de/wirtschaft/bilanz-ruestungsexporte-100.html>)

4 2025년 독일에서 달라지는 제도·정책

① 배터리 시행법(BattDG) 시행으로 배터리 순환경제 가속화

- '25. 8. 18.부터 새로운 배터리법 시행법(BattDG) 적용
 - '24. 2. 18.부터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EU 배터리 규정 2,023/1,542를 구현하는 것으로, 배터리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목표로 함
- 모든 중고 배터리는 지자체의 재활용 센터에 반납하게 되며, 중고 배터리 수거율을 현재 45%에서 '27년 말 63%, '30년 말 73% 인상 목표
 - ※ '26년) 모든 배터리에는 수명, 충전 용량, 유효 기간, 화학 성분, 위험 성분 및 안전 위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과 QR 코드가 부착
 - '27년) 새로 제조되는 기기에 2차전지를 소비자가 직접 장착 가능

② 이산화탄소세 인상

- '24년 45유로 → '25년 55유로 → '26년 65유로 인상 계획
 - 휘발유, 화석가스, 난방유 등에 부과, 관련 기업은 오염권 인증서 구입 필요
- CO2세 인상으로 인해 2025년에는 급유 및 난방 비용이 증가할 전망
 - 휘발유·디젤은 리터(L)당 평균 4.3~4.8센트(ct) 인상될 수 있으며,
 - 가스는 킬로와트시(kWh)당 0.33센트, 난방유 리터(L)당 4.8센트 인상 예상

③ 전기 분담금(Stromumlage) 인상

- 킬로와트시(kWh)당 1.3센트씩 총 3.15센트로 인상, 소비자 부담 증가
 - 전력망 사용률 변화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조치

④ 일회용 PET병 생산 시 최소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

- '25. 1. 1. 이후부터는 일회용 PET병을 최소 25%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만들어야 하며, '30. 1.부터는 30%로 상향 조정될 예정

- 재사용 가능 요건은 배달 서비스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음료에 대해서도 확대되며, 레스토랑에서는 일회용 식기 전면 금지
- '25년 초부터 EU 전역에서 유해 플라스틱(BPA) 포함 병, 캔, 포장재 금지
- ※ 뚜껑 일체형 페트병 의무화 시행 중('24. 7. 3.~)

⑤ EU 표준 충전케이블 출시

- 충전케이블 선택 혼란과 전자 폐기물을 줄이고자 '25. 1월부터 EU 내에서 판매되는 새로운 전기 장치에는 USB-C 충전 포트 장착 의무
- 충전 케이블을 통일하면 연간 2억5,000만 유로(약 3,530억 원)의 충전기 구매 비용과 1만1,000톤 규모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

⑥ 접근성 강화법 시행

- '25. 6. 28.부터는 모든 온라인 상점 및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벽 해소(Barrier Free) 의무 시행
- 정보의 음성 지원 및 인식, 글꼴 크기 등 두 가지 감각 이상 접근성 확보

⑦ 유로존 실시간 송금 도입

- 그동안 국내 송금의 경우에도 1일 정도의 시차가 발생했으나 1. 9.부터 유로존 내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지며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

⑧ 법적 최저임금 인상

- 시간당 12.41유로에서 12.82유로로 인상('24년 대비 +0.41센트, 3.3% 인상)

⑨ 소상공인 규정 변경

- 전년도 매출액을 25,000(이전 22,000) 유로로 인상하고, 당해 연도 매출액 한도는 100,000(이전 50,000) 유로로 상향

※ 출처 : IHK(<https://www.ihk-muenchen.de/de/Service/%C3%84nderungen-zum-Jahreswechsel>)